

海外業界動向

세계무역, 금년에 5% 증가

독일 6대 경제연구소의 하나인 HWWA연구소는 최근 인터이코노믹스 최신호에 무역전망을 발표하고, 금년의 세계무역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동연구소에 의하면, 작년에는 북미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였으나, 금년에는 서구의 무역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동연구소는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설비가동률의 확대, 실업률의 저하, 인플레이의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의 공업제품 이미지 조사, 일·미·독이 최고

미국 조사회사인 갤럽과 보젤 회사가 세계 12개국, 2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12개국의 공업제품에 대한 이미지 조사가 9일 발표되어, 일본·독일·미국의 제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국의 제품 이미지는 아시아, 구주, 미주의 각 지역별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이 평가 순위로 3개국의 뒤를 잇고 있다.

보젤의 피블즈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세계시장의 동향을 아는 하나의 열쇠는, 수입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에 의해, 모든 시장에서 우열이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제품은 고품질」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으나, 미주에서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제품이미지 우열은 적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세계의 워크스테이션 수요 호조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조사회사인 프레스토설리반(FS)의 「월드·워크스테이션마켓」에 의하면, '92년에 전 WS 매상의 32%를 점한 기업용 WS가 '99년에는 51%로까지 신장되며, 대수로는 96만대였던 '93년의 WS수요가 '94년에 136만대, '99년에는 751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이제까지의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그래픽용으로써의 사용에서 데이터베이스·트랜잭션과 그래픽·수퍼컴퓨터로서의 용도에까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요증가의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오픈시스템이 호환성, 스케라빌리티, 휴대성이라는 면에서 User의 Needs가 높아져, 벤더는 고급기종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기종의 퍼스널컴퓨터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저급기종의 WS를 시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역별 수요로는 아시아·태평양 제국이 기업용과 그래픽용에서 커다란 잠재성을 갖고 있어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구주가 점하는 웨어는 '92년의 34%에서 '99년에는 28%로 하강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 '93년 11월에 56% 증가

'93년 11월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55.8% 증가한 8억 3,569만달러로 대폭적인 신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반도체 메이커가 0.5미크론 프로세스 이하의 양산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반도체 메이커에 비해 뒤떨어져 있던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도 차세대 제품의 양산거점의 확충에 나서기 시작한 것도 세계수요의 신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SEAJ) Semi, Semi Japan이 발표한 것으로, 시장별로는 북미가 전년대비 51.4% 증가한 3억 4,418만 1,000달러, 일본이 동 65.4% 증가한 2억 3,680만 1,000달러, 구주가 동 30.0% 증가한 9,925만 9,000달러,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한 기타 지역이 동 74.0% 증가한 1억 5,545만 3,000달러로, 각 시장 모두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하였다.

퍼스널 컴퓨터용을 중심으로 고성능·대용량의 MOS로직 IC, MOS 메모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요 반도체 메이커가 최첨단 프로세스를 이용한 제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또 초대형 메이커인 미국 인텔사에서는 금년에도 24억달러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전년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장치별 판매액을 보면, 웨이퍼·프로세스용 제조용장치가 전년대비 0.2% 증가한 5억 2,383만 5,000달러, 검사용 장치가 동 63.0% 증가한 1억 7,607만 6,000달러, 조립용 장치가 동 4.5% 증가한 6,485만 2,000달러, 반도체 제조장치용 관련장치가 동 116.4% 증가한 4,801만 7,000달러, 웨이퍼 제조용 장치가 동 209.5% 증가한 1,407만 3,000달러, 마스크·레지클 제조용 장치가 동 29.1% 감소한 884

만 1,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태양에너지로 CD제작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 의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해, 태양에너지만으로 녹음한 음악 콤팩트 디스크(CD)를 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CD에는 아일랜드의 록그룹 「퀸」의 기타 리스트인 브리언·메이가 협력 해면상승과 이상기상 등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이 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익의 일부는 그린피스의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CD의 타이틀은 대체에너지를 의미하는 「올타나티브 NRG(에너지)」로 U₂의 「꿈의 해면」 등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린피스가 개발한 트레일러 탑재형의 태양전지 발전기의 전력을 사용해, 미국 각지의 콘서트 회장에서 라이브 녹음을 행한 것으로, 그 후의 믹싱 등도 모두 태양을 이용한 전력만으로 행하였다.

일본에서는, 포니 캐나온이 발매하며, 일반 레코드점에서 입수할 수 있다.

'93년 미국의 전자분야 무역수지 적자확대

미국전자협회(AEA)는 '93년도 전자분야 무역수지의 적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도 전체 무역수지는 추정 151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전년대비 56% 확대에 이르렀다. 수입이 1,104억달러로 전년의 9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한데 대해, 수출은 전년의 803억달러에서 863억달러로 비교적 소폭 신장에 머물렀다.

대일무역수지가 24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은 전년의 223억달러에서 크게 확대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일 수출은 전년의 82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소폭증가에 머물렀으나, 대일수입은 305억달러에서 335억달러로 약 10%나 증가하였다.

대 구주연합(EU)의 무역수지는 미국측이 140억달러의 흑자로, 흑자폭은 전년대비 1.4% 축소하였다.

미국의 GE, TFT 액정표시장치의 특허사용료 도시바 등에 청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GE)사가 TFT-(박형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의 특허사용료 지불을 일본 메이커에 청구했다.

도시바는 이미 지불에 응하였으며, 히다치제작소와 샤프도 해결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NEC는 「코멘트할 수 없다」(홍보실)고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나, GE는 후지쯔 등과도 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 메이커에 대한 청구총액은 수십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TFT액정은 소형 퍼스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화상표시장치) 등에 응용되는 외에, 장래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への 이용도 예상되는 하이테크 분야의 전략상품으로, 세계적으로 일본 메이커가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GE의 특허는 유리면에 트랜지스터를 성형하는 기술이다.

현재의 시장규모는 1천수백억엔이나, 2천년에는 1조엔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국의 CATV사업, 요금체계 수정에 착수

미국은 지금, 전자·통신·소프트웨어 등 타분야, 타업종이 한마음이 되어 쌍방향 통신망의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CATV 회사로, 그 주가도 최근 크게 상승중에 있다. 그러나, 전 미국 5,700만 세대를 커버한다고

말해지는 CATV사업은 가격상승에 따르지 못하는 서비스 질로 인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 CATV사업의 요금체계 수정에 착수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금월 10일에도 신요금 신규정을 발표하였다.

「CATV서비스에 맞는 적정요금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자문자답을 되풀이 해온 FCC는 '92년의 CATV업에서 FCC와 지방정부에 CATV요금규정 확립에 대한 권한을 미국 의회로부터 부여 받았다.

목적은 현행요금의 하향조정에 있는데, 가격인상에 비해 서비스질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가입자의 불만이 의회에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동법은 FCC에 CATV사업의 운영비용과 서비스요금의 검증, 적정요금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기본요금을 규정한다는 것으로, 권한 실행에 있어서는 FCC의 인가를 필히 하도록 하였다.

단, CATV의 확장서비스와 리모콘 등 기기의 요금설정에 대해서는 FCC에 권한을 일임하고 있다.

미국, 애플과 오러클, 쌍방향 멀티미디어 분야 협력

미국 애플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대기업인 미국 오러클이 쌍방향 멀티미디어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양사에 의하면, 애플이 「매킨토시」 PC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트 톱·박스로 불리우는 가정용 조작단말을, 오러클의 쌍방향 CATV용 기기 「미디어 서버」 용으로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금년 상반기에도 테스트기를 완성시켰으며, 이외에 현지시간 15일(일본시간 16일) 데몬스트레이션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해, 일본에도 16일 아침 위성중계 되었다.

미디어서버는 문자, 도표, 음성, 영상 등 모든 정보를 수록한 미디어에서 즉시 데이터를 불러내는 초병렬 컴퓨터(MPP)와 HPP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애플의 세트톱·박스는 전화 또는 CATV를 통해 미디어서버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꺼내, 가정의 TV에 내보내는 것이다.

애플은 매킨토시에서 익힌 고성능이고 사용하기 쉬운 기술을 살려,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것이다. 쌍방향 학습 등을 가능케 하는 사용하기 쉽고 저가적인 단말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에서는 매킨토시의 인기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서버의 프론트엔드(전처리) 장치로써 완벽한 것을 추구할 생각이다.

미국에서 SBCA 서트라이트전 오픈

톰슨·콘서머·일렉트로닉스(TCE), 다이렉트 TV, USSB의 3개사는 SBCA서트라이트전 회장에서 디지털 화상신호 압축기술 MPEG2를 사용한 150채널 직접위성방송(DBS) 서비스 개시용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구성은 콜로라도주 캐슬록의 다이렉트 TV의 어프링그 기지국에서 엔코딩한 화상신호를 서경 101°상에 정지해 있는 Ku 밴드 고풍력 120W위성 DBS1의 트랜스폰더를 경유해, 전 시회장 주변에 설치한 직경 18인치(약46cm)의 디슈·안테나로 수신하고, 회장 플로어내의 세트·톱 수신기로 데코더하여 화상출력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동그룹은 금년 4월말부터 실제의 서비스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DBS1 위성과 TCE 개발의 DSS 수신세트를 사용해 전송수신한 화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써는 이번이 최초의 시도이다.

수신한 화상은 정지화면, 동화면 및 프로그램·메뉴화면의 3종류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화

질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움직임이 딱딱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풀에 떨어지는 작은 물줄기의 종방향선이 풀속에 비치는 등의 단점이 있었고, 정지화면에서도 색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화질상의 문제에 대해, TCE의 스포크스맨은 「이번은 아직 테스트 단계이며, 화상 압축에 B프레임이 아닌, IP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못한 것이다. B 프레임 엔코딩에의 이행은 수주일내로 실시할 예정으로, 3월의 NAB전에서는 더 완전한 화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전송은 2개채널만으로, 1대4의 압축 전송을 행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 뮤지엄방식을 채용한 디지털 음성의 실현은 없었다.

한편, 온 스크린의 프로그램·메뉴를 리모콘 조작하는 시현에서는 프로그램의 채널선택을 폐지하고 카테고리별, 시간대마다의 프로그램 검색을 행하는 프로그램·가이드, 페이지·뷰 프로그램의 선택, 4:3화면에서 16:9화면으로의 원터치 교체 등의 화면을 소개하였고, 또 집프코드(우편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최적의 안테나 방향, 각도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안테나의 수신 강도를 표시하는 인스트레이션·서포트·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또 다이렉트 TV는 TCE와 공동으로 소매 Base에서 200~300달러의 추가부담으로 수신기의 쌍방향 기능 부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기종은 RS232 C포트, 고속 데이터/모뎀·포트를 내장할 전망이다.

당초 소매가격 699달러의 DSS 수신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일·박스 기능은, 다이렉트 TV와 USSB에서 수신자에의 단방향 메시지 전송에 사용되지만, 쌍방향의 어플리케이션이 확립되면 수신자 상호간에 “전자후판”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주경제는 소비 동향이 열쇠

월·스트리트·저널지(WSJ) 구주관에 의하면, 구주경제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으로 움직일지 어떨지는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느냐 저축을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興銀의 주임 이코노미스트인 아돌프·H·로젠스토크씨는 「개인소비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단언하고 「소비를 늘려 수요가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만이 저축이 갖고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작년의 구주연합(EU)의 수출은 0.4% 감소, 개인 소비는 0.2% 감소하였는데, 구주의 수출은 이전에는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코노미스트는 낙담하고 있지 않다. 작년 구주의 거의 전역에서 저축률이 저하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률 저하가 두드러진 독일은, 작년 전후 최악의 경기후퇴를 경험하였다. 독일은행의 조사부문인 DB리서치에 의하면, 저축감소와 최근의 소비자 신용증대에 의해, 작년의 구 독일지역의 경제성장은 본래 마이너스 2.5%로 하락하려던 것이 마이너스 1.9%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축률 저하의 결과, 연 1.3% 하락해도 이상현상이 아니었던 구 독일지역의 개인소비는 0.2%의 감소에 머물렀다고 한다.

DB리서치의 아날리스트들은 「현재, 커다란 문제는 금년의 가계가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기 위해 저축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사의 예측에 의하면, 금년의 독일 저축률은 약 12.5%로 지난번 경기후퇴의 말기에 해당하는 '83년 이후에서는 최저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 HDTV 도입 촉진을 위해 4년간 270억엔 원조

EU(구주연합) 각료이사회는 작년 7월 HDTV의 조기도입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작 원조금으로 2억 2,800만 ECU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구주위원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에서 '94년분의 제1차 모집을 행한 결과 1,576시간의 프로그램제작과 9,350시간의 방영분에 대하여 2,500만 ECU를 프로그램 프로덕션과 방송국에 지급케 된다.

지난달 원조가 인정된 제1차 프로그램제작 내역은, 가장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의 435시간을 필두로, 다큐멘터리 365시간, 드라마 273시간, 문화 254시간, 라이브쇼 211시간이 되고 있다.

또, 11개 방송국의 9,350시간의 방송에 대해서도 원조키로 하였는데, 구주위원회에서는 '94년의 원조액으로써 제작에서 5,300만 ECU, 방송에 대해서 3,000만 ECU를 예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제작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독립계와 중소의 프로덕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생각이다.

또한 구주에서는, 당초의 EC위원회(현 구주위원회)가 '89년에 지령을 낸 뉴스와 스포츠를 제외한 TV의 방영 영화의 51%를 EC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AV소프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구주의 정보기술시장 금년 5% 성장 예측

유력지인 남부독일신문은 「금년의 구주의 정보기술시장은 작년보다 활발해져, 장기적으로 봐도 전망은 밝다」고 하는 데이터퀘스트사의 조사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리세션의 영향으로 정보기술부문의 투자활동은 상당히 정체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주의 시장에서는 작년에 4%의 시장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금년에는 5%의 성장이 예상된다.

- ② 이러한 신장률은 일전의 붐시대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성장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PC를 사용한 비디오 회의, 고속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의 동시송신, 네트워크 관리, 컴퓨터와 전화와의 통합이라고 하는 분야의 성장률은 높아, 금후 수년간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다.
- ③ 구주시장의 '92년 규모는 1,250억달러였으며 그중 580억달러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하드부문으로, 나머지를 서비스 부문과 통신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 ④ 하드부문에서는 대형기기가 '90년이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금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던 중형기기는 금년에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분야에서는 디지털·이집프먼트(DEC)의 웨어가 하락한 반면, IBM의 웨어가 신장하였다.
- ⑤ 작년의 구주 PC 시장에서는, 코모돌과 아타리의 홈·컴퓨터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판매규모가 1,060만대에서 1,020만대로 줄었다. 단, 인텔의 프로세서와 호환성이 있는 계산기를 갖는 PC는 16% 이상이나 신장하고 있어, 금년의 PC시장은 14.3%의 신장이 예상된다.
- ⑥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여전히 톱으로, 뷰렛·팩커드와 IBM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휴대용 PC에서는 톱이었던 도시바가 후퇴하고, 콤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사는 거의 같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 ⑦ PC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주에서 48%의 웨어로 단연히 톱의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로터스가 18%로 뒤를 쫓고 있다.

독일 벤츠의 미 현지 자동차 공장인 4WD자동차공장에서 IBM의 정보시스템 채용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사가 미국의 앨러버마주 타스칼사에 건설하는 4WD 자동차공장에, IBM사의 정보기술이 채용되게 되어, 10일 뉴욕에서 양사에 의한 계약조인이 행해졌다.

양사의 공동발표에 의하면, 경영분석에서 구상입안, 수발주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IBM의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전문가에 의한 공동팀이 향후 반년간에 걸쳐 시스템 구상을 하게 되고, 타스칼사 공장에서는 '97년부터 연간 6만대의 오프로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新 레이저 디스프, 레이저기술 실용화에 기대

독일의 중견 전자음향기기 메이커인 슈나이더 라디오 공업의 타우스사장은 경제전문지 한텔스브라트와의 회견에서 「새로운 레이저 디스플레이 기술의 실용화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同紙와의 인터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자음향기기 시장은 향후에도 불투명하고, 외환시세의 사정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의 적자 6,800만 마르크에서 '93년도의 적자는 1,000만마르크 이하로 축소하였다.
- ② 작년의 영업규모는 4억에서 4억 5,000천만 마르크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는 제작년의 5억 500만마르크보다 적으나, 작년 4월부터 컴퓨터 부문에의 투자를 증지함으로써 약 9,000만마르크의 규모가 축소된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나쁜 성적만은 아니다.
- ③ 금년에도 시장이 호전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합리화에 의한 기업의 건전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에 대한

기대는 크다.

- ④ 향후 크게 기대되는 것은 레이저 디스플레이 기술의 실용화인바, 이미 최초의 테스트 모델이 완성되어, '97~'98년도부터 일반 TV화상과 전문기술 분야에서의 개혁이 행해질 것이다.
당사가 제출하고 있는 8개의 특허 신청중에서 칼라 트랜스퍼메이션에 관한 최초의 신청이 우선 인가되었다.
- ⑤ 연방정부의 크류가 연구기술장관은 최근 레이저 기술부문에 2억 7,000만 마르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당사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샤프, TV회의 이용으로 월간출장경비 1,700만엔 절감

샤프는 국내외 17개 거점을 연결하는 TV회의망 이용에 의해 출장경비가 월간 약 1,700만엔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사의 TV회의 네트워크는 국내 13개 거점, 해외 4개거점에 연결되어 일상업무에 이용되고 있는데, 동사에 의하면 작년 11월, 12월의 2개월 동안의 이용상황은 약 140회, 약 2,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회의처를 감안해 산출해 보면, 1개월에 출장시간이 1,500시간 수감되며, 이에 따르는 출장여비의 절감액은 약 1,7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동사에서는 회의 출석자의 1/4이 출장을 나온 것으로 산출하고 있어, 실제로는 그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회의망은 전국의 각 사업본부, 연구개발부문 등에 거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빈도가 많은 오오사카 본사지역에서는 타나베 빌딩에, 나라현 덴리시의 종합개발센터 지역에서는 기술본부에도 설치하는 등 충실을 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2개소, 독일과 영국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금후 중요거점에 대

해서는 그 지역의 통신인프라가 정비되는대로 설치를 행할 예정이다.

작년의 전자재료 생산, 수량·금액 모두 전년 대비 1% 감소

일본 전자재료공업회에 의하면, '93년도 일본의 전자재료 생산은 수량·금액은 모두 전년도보다 1%씩 감소하였다고 한다. '93년도 전자재료의 총중량은 16만 5,340톤이며, 금액은 3,891억 7,800만엔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 전자재료의 생산은 '92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되는데, 품목별로 보면, 생산액이 큰 금속재료, 웨라이트, 영구자석이 어느 것이나 5~7% 감소를 기록하여, 국내의 전자부품생산 부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도체 세라믹, 세라믹기관, 압전세라믹 등의 세라믹계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신장률을 보였고, 그중에서도 압전세라믹은 '91년에 비해서도 생산액에서 2.5%라는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본, 光산업 향후에도 지속성장

(재)광산업기술진흥협회는 '93년도 광산업 생산전망액을 조사 발표한바, 그에 의하면, '93년도의 생산액은 3조 7,850억엔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주요산업의 장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광기기 장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산업의 생산전망액 조사는 128개사의 회답을 정리한 것으로, 광산업은 불황을 극복하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차세대 광통신망을 비롯해 국제적인 정보하이웨이 구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멀티미디어화애로의 급속한 움직임에

대응해 광부품이 신장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소자, 광화이어, 광전송 링크 등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액의 내역을 보면, 광기기 장치가 2조 8,086억엔, 광부품은 9,764억엔이다. 광기기 장치에서는 광디스크장치, 광입출력장치, 광전송기기 장치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4% 증가한 1,683억엔으로, 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광부품은 디스플레이 소자, 광화이버, 광전송리스크 등의 신장에 의해 전년대비 12.7% 증가한 1,100억엔을 기록하였다.

광기기 장치중에서 광디스크는 1조 4,897억엔으로 구성비는 53%를 점하고 있다.

광입력장치는 8,462억엔, 광전송기기 장치는 2,446억엔, 광센싱기기는 1,005억엔, 레이저 응용 생산장치는 421억엔이다.

광측정기에는 OTDR,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표준광원 등이 있어 246억엔을 나타냈다.

광부품중에서 디스플레이소자는 4,787억엔으로 구성비는 49%, 발광소자는 1,387억엔, 광화이버는 1,269억엔, 수광소자는 1,115억엔, 복합광소자는 572억엔, 광전송 링크는 163억엔, 태양전지는 157억엔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레이저는 광전송기기 장치, 광디스크, 광학식 프린터 등의 수요증가로 10.6% 증가하였고, 광화이버도 광전송기기 장치 등의 신장이 반영되어 9.9%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통신분야가 전년대비 13.0% 증가한 4,844억엔, 정보분야가 7.5% 증가한 3조 2,021억엔, 에너지분야가 1.0% 감소한 985억엔을 나타냈다.

하이비전 방송의 CATV전송시, FM방식과 함께 AM방식도 채용

하이비전방송을 CATV로 전송할 경우, FM(주파수변조) 방식에 더하여, AM(진폭변조) 방식도 채용하게 되어, 유선 TV방송법 시

행규칙의 일부 개정이 금월중에 공포시행되게 되었다.

위성방송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이비전방송을 CATV로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시판되고 있는 BS튜너가 이용할 수 있는 FM주파수변조방식이 있으며, 이미 기술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통상 7개 TV채널분의 전송대역이 필요해, 채널의 여유가 없는 CATV에서도 하이비전 방송의 도입, 다채널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M전송방식이 개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정성에서는 CATV에서 AM전송방식을 채용해 하이비전 방송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추가하였고, 10일 개최된 전기통신 기술심의회에 자문을 구한 후 CATV의 보급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의 공포시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미 기업, 베트남 시장참여에 실패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구주기업의 '87년 이후의 對베트남투자는 총액 75억달러에 이른다. 항공, 인프라스트라처(사회자본정비) 유전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투자기회는 아직 남아 있지만 무역·관광성의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 등 일부의 분야에서는 미국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더이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 기업에서는 태국의 타이거·빌이 베트남에서 잘 팔리고 있으며, 혼다는 오토바이의 대명사가 되는 등 현지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다.

호치민시 남방 약 8,000km, 메콩천 델타지대에 위치한 벤토레지구는 쌀, 코코넛 등의 재배지구였으나, 여기에 벨기에 기업이 외국자본으로서는 최초로 진출하고 있다. 행정당국자에 의하면, 이 기업은 코코넛껍질의 가공공장에 48억달러를 투자하였다고 한다. 또 한국기업도 약 600헥타르의 바나나농장에 7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벤토래지구를 방문한 경제관계 대표단은 60개 단체로 모두 아시아나 구주에서 온 것이었다. 금년에는 약 100개 단체가 방문할 예정이다나, 미국단체가 포함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아시아, 구주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어느정도 자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해제의 Needs에 대해서 매스컴과 일반사람의 반응은 조용한 것이었다. 해제가 경제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고 하는 견해가 강하다.

베트남은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 아직 진출여지가 남아있는 마지막 투자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 1당지배라고는 하지만, 시장경제확립을 추구하고 있어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연간 1인당 구매력은 350달러로 적으나, 경제성장률 년 7%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적으며, 노동력의 질은 높고, 임금은 싸다.

베트남정부는 국외기업의 투자유치에 열심인데, 금세기말까지 200억달러의 추가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관료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총액 75억달러중 실행된 것은 20억달러에 불과하나, 베트남정부는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국가투자협력위원회에 의하면, 금년도 해외로부터의 투자합의는 40억달러로, 실제의 투자는 15억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투자액 중 가장 많은 것은 대만의 15억 4,000만달러, 홍콩의 12억 5,000만달러인데,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을 피하려 하고 있는 대만당국은 베트남에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개 기업으로서 투자액이 최대인 대만의 경호우 그룹은, 베트남북부 하이혼의 시멘트공장에 2억 2,800만달러, 오토바이 공장에 5,500만달러, 투자회사에 1,5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키로 합의

인도네시아의 최대관광지인 발리섬을 방문 중인 이등회담대만총통은 11일 동섬에 있는 대통령 궁전에서 수하르트대통령과 회담을 하였는바, 대만 당국자에 의하면, 쌍방은 금후 경제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총통이 국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제국연합(ASEAN)의 맹주를 자인하는 인도네시아를 최초로 방문하고, 더욱이 관계강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대만측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금후 「남향정책」(동남아시아와의 관계강화)을 더욱 추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등이 이총통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정부의 반발을 불러들일 것은 필연으로, 금후 중국과 ASEAN간의 긴장관계가 예상된다.

대만당국의 스포스만에 의하면, 이총통은 덴파셀북방 약 40km에 있는 탄파크실링 궁전에서 동일 12시 (한국시간 동일 13시)가 지나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통역만을 참가시킨 가운데 1:1로 회담을 행하고 그후 오찬을 함께했다고 한다.

회담은 「의례적, 우호적인 비공식 회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경제협력의 강화」와 「농촌발전 및 농업경제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합의하였고, 또 수하르트대통령은 회담석상에서 「대만의 재계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함으로써 무역교류가 발전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이총통은 그후에 예정되어 있던 쿠타비치 시찰을 취소하였으며, 밤에는 하바비국방상부처를 호텔에 초대해 답례연을 개최하였다.

당국자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측은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기자단 용의 브리핑을 일체 사절하였다.

대만업체, 중국에서의 Pager시장에 적극진출

대만의 뽀뽀 메이커로서는 대만에서 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양실업과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유신과지 등의 각사가 대만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브랜드의 지명도를 높혀가고 있다. 「DYTCOM」 브랜드로 뽀뽀와 전화를 생산하고 있는 대양실업은 '93년의 매상고가 3천만달러(33억엔)로, 이중 60%인 1,800만달러가 뽀뽀이며, 나머지 40%를 전화관련기기의 매상이 접하고 있다.

특히, 뽀뽀 매상의 70%는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동사의 정현룡부사장에 의하면, 대양실업은 작년 10월에 중국과의 합작사업계약에 조인하고, SKD(세미넉다운식 생산) 베이스에 의한 공장의 조립, 제품공급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종업원은 대만에 300명, 중국에 300명이며, 금년에는 코드레스 전화에서 500m에서 2km를 커버할 수 있는 '미들렌지'라는 신제품을 도입할 계획인데,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금후 마켓과 코스트를 조사한 후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프로피트"(보급대)와 "니치" 모델을 선보일 계획. 뽀뽀에서는 최근 경량, 콤팩트, 중국어 문자에 의한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중국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유신과지는 중국시장에서 이미 자사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있으나, 최근 3~4개월에 걸쳐 소형, 콤팩트하고, 중국어에 의한 메시지가 가능한 신제품 「ST-700」을 시장에 출시한다. 숫자로 메시지를 행하는 종래의 숫자(누메리칼) 타입의 뽀뽀에서는 문자수에 제약이 있었으나, 중국어는 짧은 단어로 최대한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 편리함이 돋보인다.

유신과지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은, ①뽀뽀사업에 전문성을 띄었다는 것과 ②R&D, 엔지니어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점 ③A/S와 멘테넌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동사의 이보양 사장은 「중국시장은 잠재성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모토롤라의 아성에 도전할 뜻을 강하게 비추었다. 동사는 1년반전에는 사원수 10명 전후의 소규모였으나, 현재는 110명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매상은 약 4천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전체의 56%를 중국시장이 점하고 있으며, 30%가 대만 국내용, 나머지가 구주, 중동용인데, 기타 지역의 수출을 위해 동사는 이미 스웨덴과 캐나다의 PTT인가도 취득하였다.